

승리의 생활 시리즈 4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의롭게 사는 법**

Jesus' Teaching on Practical Righteousness

James W. Knox 지음

고 정 인 옮김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승리의 생활 시리즈 4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 의롭게 사는 법

Jesus' Teaching on Practical Righteousness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1. 2. 5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기 이 | 고정인

펴 낸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http://www.ilovekjib.com)

■ ISBN 979-11-971322-2-3

■ 정가 4,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1

이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을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간순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에는 다음 말씀들보다 더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의 순서는 성령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우리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

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마태복음 3:15).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4).

또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7)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10).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19).

주님께에서 처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이 구절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1.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지위에 어울릴 수준의 의로움을 갖춰야 합니다.
2. 모든 물질적 소유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참된 인생과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뽑아낸 구절들이 아니라 한 구절도 빠지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4. 인생에서 유혹은 항상 존재하지만, 엄격하게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다.

5.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6.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7.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8.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9.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0.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 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주님께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인간 저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순서를 짜서 기록한 게 아니라, 지식이 뛰어나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 ◇ ◇ ◇

우리가 읽은 구절 중 첫 번째 구절에서 위대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대언자의 명령에 순종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목회자를 비롯한 훌륭한 사람들과 진실하며 독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완전히 의로울 필요는 없다고 종종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생각에 코웃음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의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 ◇ ◇ ◇

우리가 읽은 두 번째 구절은 사십 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마귀는 그분께 식사를 권했고, 그분께서는 육신의 합법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돌들을 필요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왜 죄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빵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먹기 원하셨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 삶을 유지하고 즐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욥기 23장 12절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 ◇ ◇ ◇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득하시지만, 그분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며, 그토록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께서 죄를 못 본 척하시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 ◇ ◇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네 번째 말씀은 사탄에게 그분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용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야고보서 4:8). 경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섬김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죄 없으신 사람의 아들이시며,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모두 다 똑같은 죄 인입니다. 숨 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명령들은 또한 우리를 얹어 매는 육신적 눈의 속박을 깨뜨리고, 현재의 악한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든, 우리를 둘러싼 시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아직 이 땅의 왕국의 왕좌를 차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차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아직 올리브 산에 내려 서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열정 위에 서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휘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않으시지만,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손목 바로 옆에 손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통치력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 여섯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각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명령보다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초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반복해서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미로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넘어지거나 계속되는 막다른 골목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우리는 여러 면에서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타고난 재능, 공부와 훈련 또는 의지력으로 이뤄 보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아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더 잘해 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반드시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하지 않다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 과분하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평생 동안 물고기 잡기, 그물 고치기, 물고기 내다 팔기밖에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설교자, 전도자의 역할을 맡기셨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임무를 맡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고 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

이 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여섯 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 2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는 의롭게 사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 구절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딱히 논리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구절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의 말씀부터 살펴 봅시다.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몇 구절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7-28).

이 구절들은 서로 다른 외적인 죄를 다루지만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같이 묶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범죄는 살인이고, 뒤에서 말하는 범죄는 간음입니다. 다윗이 생각납니다. 이 두 가지 죄 모두 평범한 사람이 자기는 평생 절대로 저지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서는 외적으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의 문자적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욕구 역시 죄를 짓는 일 그 자체만큼이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그녀를 더럽히는 것만큼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

나 그러한 의도와 욕망이 그분께는 불쾌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나쁜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속사람을 다스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암시하는 내용에 대부분의 사람은 불쾌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제되지 못한 분노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자기 치솟는 분노 때문에 또는 긴 시간 참아 오던 쓰라린 감정이나 원한이 폭발해서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영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면 행동을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간음을 저지른 적 없으며 성경이 가장 악한 죄로 여기는 그 죄를 지어 보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성적 호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는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진들과 영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욕망에 관해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거룩하

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불장난 같은 연애,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 로맨스 소설 및 러브스토리를 담은 영화는 모두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본다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과거 이브의 마음을 흔들었던 갈망과 몹시 유사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생각과 내적 충동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지점부터 승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령님을 통해 승리한다면, 우리는 외적이며 드러난 곳에서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

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양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율법과 규정은 구약의 많은 계명을 차지하며 그 누구도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무효가 되고 받을만하신 것이 될 수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은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22:37-40).

많은 사람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나 쓴 뿌리를 품은 채 예배의 자리로 와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친구나 형제와의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무언가에 오래도록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 일부는 타당한 불만이고 누군가에게 받은 진짜 상처로 인해 발생한 일일 것입니다. 하

지만 다른 일부는 확실히 사소하며 어리석은 쓴 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그분께 드린 찬양, 감사, 아멘, 십일조, 헌금, 봉사는 그분께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모든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문제가 있는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호의를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여러분을 감금해둘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역경을 빨리 끝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그 동안 해왔던 우리의 성의 없는 시도와 진실하지 못한 태도는 화해를 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헌물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화해시키시기 위해 하셨던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문제가 되는 일들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영적 성장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신을 평가하고 싶다면, 그들은 언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불평, 쓸데없는 말, 헛된 말다툼, 말장난 등을 언급하고 있는  
지를 고려해보면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 ◇ ◇ ◇

마태복음 5장 33절-37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의미와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맹세나 저주 또는 서약을 덧붙인다는 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거의 신뢰할 수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완전하고 진실하여야 하

며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잠언은 우리가 말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칙들과 그 규칙을 시도해도 없이 어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역시 거짓말하는 입술과 상처 주는 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육신적인 대화와 반대되는 의로운 말을 하라고 신약 교회의 구원 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들을 향한 다음의 짧은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에베소서 4:15).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에베소서 4:25).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31).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에베소서 5:19).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에베소서 6:20).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골로새서

4:6).

비난 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8).

성경의 지혜서에 기록된 입술에 관한 이 말씀들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 주었으리라 (욥기 16:5).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기 27:4).

내 마음의 올바른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욥기 33:3).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4).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편 40:9).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시편 51:15).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63:3).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시편 71:23).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며 (시편 119:13).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셨사오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시편 119:171).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잠언 8:6-7).

말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귀중한 보물처럼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예와 영광,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1:3).

◇ ◇ ◇ ◇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받을 때 복수를 통해 조금이라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직접 나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본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를 학대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요구하십니다. 죄에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보상의 날이 있을 것이며, 의로운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2:19).

그러는 한편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 ◇ ◇ ◇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48절을 살펴보면서 이번 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



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가르침은 ‘남들보다 더 성숙한 자가 되어라’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철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우받은 만큼만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나 그분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습관적으로 그분께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사회에서 가장 썩어빠진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규칙적으로 친

절한 행동, 정중한 인사, 사랑의 표현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특성입니다. 증오에 대한 사랑, 해로운 사람에 대한 축복, 냉혹한 사람에 대한 친절. 여호와께서는 타락한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을 이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산상 수훈의 이 간단한 교훈은 심오하며 배우는 데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릴 수 있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 3

이 장에서는 마태복음 18장 1절-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의 친절과 사랑, 예의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1절).

그들은 자존심이 셧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던 죄인의 무리가 그들 중 누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지 토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슬프면서 우

습기까지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4절).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지만, 사람들에게서 가장 찾기 어려운 덕목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눈앞에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았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창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하심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신이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관한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업적에 대해 칭찬과 박수를 받기 원하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들은 죽음, 지옥, 무덤을 이기신 주님에 대해 설교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멋지게 설명해 낸 자신을 칭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충격적인 차이



를 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앞에 앉아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칭찬해주거나 드높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매우 끔찍한 일인 동시에 매우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5절).

그 누구도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면서 이 부분만을 구원의 계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고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교회를 수치스럽게 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분께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6절).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주의한 말, 상처 주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주님께서서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례한 말을 내뱉는 것과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배우자를 맹렬히 비난하는 모습을 초신자가 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돌을 몸에 묶고 바다에 뛰어 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바다에 뛰어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중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선하신 이름과 그분의 백성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7절).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구절은 개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웃, 시민, 친구, 형제들을 빈번하게 학대하는 것으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온 세상에 경고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7절). 여기서 화의 초점은 세상에서 개인으로 좁혀집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근절시키고 피하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8-9절).

이 명령은 다소 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존재하는 영원한 불에 관한 모든 교리적 문제와 맹인이나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이 땅의 끔찍한 삶이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보다 낫다는 사실을 탐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

과 생각과 인생을 부주의하게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 심히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발을 잘라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의 눈을 뽑는 구절을 나오면 우리는 몸서리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 몸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무력한 사람, 또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고 끔찍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신체를 불구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손에 쥔 도끼를 마구 휘두르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눈높이에서 부주의하게 칼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심한 말을 주의하지 않은 채 마구 내뱉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10절).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천사들  
과 인간들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읽  
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하늘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  
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 가장 작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의 교훈에서 배운 그 단어와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이 주님께 알려지고 그분을 불쾌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훈계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  
주의한 행동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4

의로운 삶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에  
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마가복음 7장 1절-16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  
씀은 많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는 사람이 만든 의를 비난하시고, 인간의 규칙과 규정으로 하나님의 말  
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대체하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고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서부터 나와 그분께 왔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라 (1-2절)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들은 항상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악한 자들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둘 다에 익숙해지고 그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3-4절).

이러한 활동에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이란 없습니다. 손을 잘 씻는 것과 전반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에는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러한 관행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분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일인지의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과 강단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수염을 길러도 되는지,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 또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에는 자신의 시간을 몽땅 투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간증하지 않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으며 선교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물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5-7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입술로만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들이 살인이나 도둑질을 저질렀다고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은 높이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은 높이고 하나님은 멸시할까요? 그들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최고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시합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창조주는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교리에 근거해 자기는 거룩하고 다른 모든 이들은 덜 거룩하다고 선언하려 했습니다. 종교계는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8-9절),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조직, 팀, 그리고 교회에는 규칙이 있고, 합리적인 경우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규칙을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공격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명령을 더 높이고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과 굶주린 애완동물을 구해 주며,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누군가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을 모욕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홈스쿨링을 하고,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며, 공화

당을 지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현대 의학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리 설교를 조롱하고, 선교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며, 부패한 성경을 읽고 형제들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제가 감히 말씀 드리자면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 심방 가기: 5% 미만 참여
-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기: 거의 100%
- 한주에 한 명에게라도 간증하기: 5% 미만
- 부활절 바구니 만들기: 거의 100%
- 일 년 내내 성경 읽기: 매우 소수의 인원
-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신화 홍보하기: 거의 100%
-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기: 거의 0%
- 자녀의 식단이나 약 또는 예방 접종에 대해 아이의 어머니에게 알려주기: 50%
- 현 대통령 규탄하기: 75%
- 죄와 사탄 규탄하기: 10%

셀 수 없이 많은 현대 교회들과 교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는

깊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헌신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주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인간이 만든 전통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로 규칙을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규칙을 정하셨습니다(신명기 10:13; 미가 2:7).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이 만든 규칙이 말이 된다고 느끼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 아니면 진심으로 속고 있어서 그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광신도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교리에 헌신하듯이 주님께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초대 교회도 병들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이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자신의 말과 결정과 법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행위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는 무시한 채 자기 생각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는 치약과 탈취제 사용, 치과 방문,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구입, 기록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홈스쿨링, 머리 염색, 화장, 약, 설탕 섭취, 돼지고기 섭취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의 논쟁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르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거니와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10-12절).

모세(하나님의 말씀)는 이르되 [...]. 너희는 이르되. 이 단어들만 봐



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교수님은, 신문 기사는, 우리 교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로거, 유튜버는 저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믿음을 성경의 분명한 진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혼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고 방식을 나무라셨습니다.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13절).

주님의 말씀의 놀랍고 영원한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 혼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대신 침례나 교인 명부에 기록되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 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것을 신화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비춰주는 빛을 향해 걸을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사기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철학과 헛된 규칙을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는 자녀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처럼 혼란스러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참조가 될 만한 훌륭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신이나 거짓 믿음이 말씀의 힘을 무효로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히브리서 4:2).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4-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훈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합시다.

## 5

이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읽어보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굿 샘 클럽(Good Sam Club)이라고 길 위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운전자를 돕는 여행 클럽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기록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

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왜 이 구절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한 남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의와 합당한 행동을 자랑하는 중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한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구절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가진 자부심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지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justification, 칭의)은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의롭게 하심이 없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해 스스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은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로마서 3:20, 24, 28).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낮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잠언 27:2).

이 사람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고, 자신만의 표준을 정했으며, 자신만의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자 스스로 곧바른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매우 현대적이며 완벽하게 간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마치 “저에게는 정말로 이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처럼 그렇게 의롭고 고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당연한 이

야기를 왜 하나는 거의 비웃음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암시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주님께서는 명백히 잘못된 게 없었지만 끔찍한 어려움을 겪어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반쯤 죽이고(half dead)”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 중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이 표현이 의미하거나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끔찍한 상태라고만 말해두는 거로 충분합니다. 그는 얻어맞았고, 그의 뼈는 부러졌으며, 옷은 벗겨졌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의 모습은 현재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상태야말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1-3).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간단히 말해, 종교인들은 그를 돕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은 당황했을까요? 그 역시 이 부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존경 받는 그 종교인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욱더 대답해졌을까요?

어쩌면 그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남자가 이미 반쯤 죽어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는 없다고 여기고 도와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반쯤 죽은 피해자를 세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었지만, 그 세 사람 중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 너무 가혹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반쯤 죽어있는 사람을 매일 몇 명씩 그냥 지나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활은 하지만 영적인 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시간 우리의 곁을 지나쳐 갑니다. 키가 크든지 작든지, 말랐든지 통통하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우리는 살면서 그들을 항상 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는 듯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간단한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자 하느냐?”

여러분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타락한 이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나요?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긴 목록은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긍휼로 채워 주실 수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세우신 모범이며, 그분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을 찾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배교한 사람이 우리를 먼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선한 이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이 구절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 희생은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에너지, 돈을 다

른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친다면 그 희생이 우리의 금고를 채워줄 것이라는 사고 방식은 어리석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응급 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맬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던지 그것은 이미 더럽혀져서 더 이상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된 기름과 포도즙은 사르밧 과부의 병에서 나온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생겨나지 않았으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자기 희생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았고, 오직 강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 희생과 은혜의 유일한 수혜자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쓰러진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사마리아인은 이 여관에 들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았을 때 바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처음 지나갔던 두 명의 행인들도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

는 관심을 가졌으므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어진 교훈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로운 자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위급한 순간에만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었던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의 개인적인 손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이에 대한 답변이 명백한 만큼 그 답은 도전적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둑

들과 강도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반쯤 죽은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6

이번 장에서는 누가복음 11장 37절-54절을 살펴보고 학대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약간의 힘이나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 보면 그가 주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그 능력을 축복, 도움, 구원, 희망, 그리고 위로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폭군이나 잔인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거의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한 사람이 일꾼에서 감독자로, 동료에서 상사로, 일반 교인에서 집사로, 군인에서 장교로, 남자 친구에

서 남편의 자리로 올라가면, 욕신은 거의 항상 그 자리에 오른 자를 교만과 무례함으로 채웁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힘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부 관료, 독재자, 종교 지도자 또는 목회자가 완전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은 종종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고 악한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그분께서 들어가사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그분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37-38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고립된 채로 살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죄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해서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9절). 저는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에 응답해 주시는 부분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읽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39절).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들의 행동 방식을 비난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그렇게 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씻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끔찍한 잘못된 간과했습니다.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이러한 유혹은 나이 많은 형제자매, 권위적인 배우자, 부모, 교회 지도자, 그리고 누군가를 학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곤란에 처했지만, 같은 죄를 범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대립 없이 계속해서 그 권세를 휘두르고 다닙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

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40-42절).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들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분명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무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들로 간주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깨끗한 손보다 깨끗한 마음을 선호하십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우리의 외적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간의 내적 상태를 인간이 만들어낸 외적 청결의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성화된 삶을 살려는 그들의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십일조를 계속하도록 격려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창조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당의 맨 뒷자리와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43-44절).

그들은 자신의 지위로 인해 얻은 권세를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위에서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신의 지위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아름답지만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무덤을 그들과 비교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우리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굽실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때에 율법사들 중의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기에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45-46절).

여기에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법을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삶에 희망을 주는 주님의 진리를 버거운 짐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데 그 지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남편은 머리의 직분을 맡아 자신의 신부를 순결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는 먼저 규칙을 지키며 그 규칙을 기쁨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두 배나 더 존경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컬었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의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47-51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멸하는데 그들의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 파멸을 가져왔으며, 그들이 전 세계로 분산되는 일을 초래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고쳐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를 바르게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사람의 충고를 고의적으로 거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 충고를 받아들일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를 대적하고 반항할 것인가요?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2절).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비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프라이빗 클럽, 내부 정보, 암호, 임회식, 독점 멤버십 등을 설립해 그들의 지식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로 걷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 말씀의 진리를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낸 사기로 가득하고 압제적인 종교가 끝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는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다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지위를 온전히 활용하여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53-54절).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그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들은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시민들에게 하듯이 자신의 지배 아래로 그분을 꿰어 앉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지옥에서 자신의 실수를 처

절하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4).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바로잡아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배우자, 자녀, 주일 학교 수업, 승진 또는 사역이 주어졌을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권위를 절대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보다 위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임의 리더를 맡기시든지 우리가 돌봐 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2장 4절에 나오는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재판하고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구원하며 학대하는 자를 산산조각 내리이다.

잠언 3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 때문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이집트를 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시편 12장 5절에서 그분께서는 학대 받는 사람들을 위해 반복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짖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 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잔인하게 이용하는 권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도서 5장 8절에 희망이 담긴 훈계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네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번 장은 누가복음 14장 25절-33절의 교훈을 다룰 것입니다. 이번 장의 소제목은 <길게 보고 알맞은 계획을 세우십시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를 성취할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시며, 그 계획이 수행될 때까지 의롭게 인내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고귀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육신은 현재만을 위해 살며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바로 앞에 닥친 일들만 생각하며 먼 미래에 관하여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됨에 따라,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미리 숙고하며, 우리가 하는 각 선택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비성경적인 거짓 믿음의 개념을 배웠 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지라도, 또는 “인도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행동 하는 것입니다. 도박과 같은 그러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로마서 10:17).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한 뒤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결코 배우지 않았습시다. 우리가 배운 것은 성경을 탐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다른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배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만큼 그분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번 장의 본문인 누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5-26절). 출애굽기 32장을 읽을 때 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오해받고 미움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마저 이 구절을 나름대로 해명하거나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통해 직접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정죄하거나 미워한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그리스도께서는 부모를 죽이라고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배우자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을 처형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신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제자로서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을 따르는 모든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에 대해 죽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육체의 가족의 욕망보다 우선시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고 가까운 가족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 역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매일 매일의 단기적이고 고통스러운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순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는데 부모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삶에 반대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에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따라 탕자의 돼지우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택한 목자를 따르기 위해 떠나는 제자를 모욕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덜 가치 있는 희망, 야망, 꿈을 모두 기꺼이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욕, 습관 또는 죄를 기꺼이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똑같이 존중해주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덜대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나는 먼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 분보다 자신들이 더 가치 없다고 말하는 데에 실망만 느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5). 우리가 만약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대답하면 (요한계시록 1:6),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 뿐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다른 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우리는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의 소제목은 필립 로저스 매지(Philip Rodgers Magee)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래 글은 여기에 다 담기에는 공간이 부족해 전체를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오래 전에 읽고 제 자신을 격려

하기 위해 적어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는 자신을 따르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에 대해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리더를 믿고 거침없이 돌진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을 치러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 그 대가를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리더를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존경 받을만한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을 숨기지 않았습니니다. 출애굽 시대의 리더였던 모세이든지, 유대의 애국자였던 마카베오(Maccabaeus)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든지, 아니면 미국 역사 속 위대한 리더인 조지 워싱턴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음과 같이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피할 수 없는 희생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시간이나 돈, 명성, 헌신 또는 피같이 지불해야 하는 값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를 하십시오.”

역사는 또한 그 리더들을 따랐던 자들이 리더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카베오와 자유를 위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작은 포도원을 비롯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모든 희망까지 희생한 유대 농부의 충성심, 알렉산더 제왕과 세계 정복을 위해 페르시아의 계곡에서 매복하다 머리가 잘린 채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한 그리스 군인의 충성심, 그리고 밸리 포지(Valley Forge, 펜실베이니아 주 동남부의 마을)의 눈 위에 맨발로 서서 자신의 리더와 대의를 위해 접전을 벌이며

가지고 있던 마지막 백랍 손가락까지 팔아서 바친 조지 워싱턴의 부하들의 충성심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리더와 그분의 가장 위대한 대의를 위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28-30절).

예수님께서서는 큰 건물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울 때 건축 계획과 최종 비용에 대한 회계가 필요하다는 상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지점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끝낼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끝내야만 하는 일인지 판단해 보고, 만

약 가고자 하는 길의 끝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을 갖기 전에, 배우자를 맞이하기 전에, 첫 술잔을 기울이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리고 담배를 피우기 전에 등등 예수님께서는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그 어떤 행동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 먼저 알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31-32절).

매우 다른 예시인 듯 보이지만 같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한 군주가 전쟁의 모든 가능성을 가늠해보지 않고 전투에 돌입한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 온전히 생각해 보았나요? 개인, 교회, 직업 등에 관해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에 관한 결정을 내렸을 때 각각의 결정이 이후의 수년 동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려했나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기 훨씬 전에 우리가 한 행동이 실수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하고 나서야 우리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고려해 본 후 주님께 명예와 영광을 가져다 드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우리를 위한 탐을 세우려는 계획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한다면, 그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또는 학교나 사업, 결혼식장 또는 선교지)에 나갈 때 거기로 가는 길이 훗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길이 아니라면 그러한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이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길입니까?

우리가 내린 선택의 즉각적인 결과만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많은 기쁜 진리를 가르쳐주는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3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적과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에 관해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예언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날의 위험에 대해 논의할 때 종종 간과되는 부분을 밝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

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6-36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노아 시대의 홍수와 롯 시대의 불과 유황 재앙이 대환난을 예표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전 시대에 살던 수많은 백성의 파멸과 이제 곧 쏟아질 진노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지만, 그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치지 못할 것이며, 도망친 사람 중 일부도 나중에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지진, 떨어지는 별, 역병,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은 끔찍한 표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구절들에 기록된 경고는 앞서 언급한 표적들에 비하면 훨씬 가벼워 보이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폭력과 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며, 그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는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충분한 설교 역시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나고 불건전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혼하고 널리 퍼졌으며 주님의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행위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심으로써 그들이 인류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질서 정연했으며,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돔에 불과 유황이 떨어진 바로 그 날에 그들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어떤 행위도 범죄가 아니었고,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구절 역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먹었고 장을 보러 갔으며 농작물을 키우는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시겠지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제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로 인해 매우 불쾌해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이 온통 타락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일 아무런 감사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수확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터가 있었지만 불평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아내와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로, 다리, 집, 창고를 세우고 재산을 축적했지만, 결코 우주의 창조주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뼈대한 삶을 산다는 핑계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에 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셨던 것은 살인이나 대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매일 매일의 삶을 자세히 살

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던 때를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분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보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저지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고 팔지만 기도하지 않고, 심고 건축하지만 간증하지는 않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노아와 롯의 날들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것이었고,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노아와 롯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지었던 끔찍한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줍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5-6절).

이처럼 심한 죄악의 시기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 시대 사람들의 사악한 상상력이나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들의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내려진 형벌

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때가 가까워질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거짓 대언자와 형상에 대해 경고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전쟁과 지진과 질병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매일 매일의 삶에 묶여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헌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책망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본인이 직접 파괴하신 도시들과 비교하셨지만, 그분의 백성과 파괴된 도시의 공통점은 열정이 아니라 부주의였습니다.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교만함, 빵의 풍족함, 그리고 게으름이 많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생각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방주를 탔고,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모두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음 페이지에서 술에 취한 노아와 가증한 짓을 저지른 그의 아들, 그리고 저주받은 손자에 대해 읽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끔찍한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도서 목록

##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91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김영균	56	1000
92	다윗의 실패	James W. Knox	176	7000
93	바울의 기도	W. H. Griffith Thomas	160	7000
94	광야 이야기	James W. Knox	104	5000
95	금송아지 사건	James W. Knox	124	5000
94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의롭게 사는 법	James W. Knox	96	4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옮긴이 **고 정 인**

- 연세대학교 영어학석사
- 한마음미션
- 역서 : 영의 세계, 믿음 사용 설명서, 다윗의 실패, 광야 이야기,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의롭게 사는 법





